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오렌지중앙교회 장학생 모집 12명 선발 1,000달러씩 지급

웨스트민스터의 오렌지중앙교회가 2025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2-4년제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풀타임 학생이다. 오렌지중앙교회는 모두 12명의 학생을 선발해 1,000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신앙 간증과 장래 희망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목회자와 교수의 추천서 각 1통, 성적 증명서 등이다. 신청 마감은 7월 20일. 교회 측은 김종곤 장로가 위원장을 맡는 장학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 장학생 심사를 맡게 한다.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정 결과를 8월 10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오렌지중앙교회는 창립 46주년을 맞았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130여 명에게 14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의: orangechurch.org

레오 14세 교황 자서전 전기 7월 8일 한국어 번역판 출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레오 14세 교황의 삶과 신앙 여정을 담은 전기 '교황 레오 14세' (가톨릭출판사)가 오는 7월 8일(한국시간) 한국에 번역 출간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책은 교황 전문 저널리스트 도메니코 아가소가 집필한 자서전 형식의 전기로, 원서는 이탈리아의 문다도리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한국어 번역은 이재협·김호열 신부, 번역가 이상욱, 바티칸 뉴스 한국어 팀의 가비노 김 등 총 4인이 공동으로 맡았다. 책은 레오 14세 교황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그의 사목 활동,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특별한 인연, 교황 선출 당시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오늘날 가톨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 교황 레오 14세의 영성적 토대와 선교 경험, 그리고 그의 교회 리더십이 담고 있는 비전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서울대교구는 이 책이 현대 가톨릭교회의 모습과 교황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온누리교회 예배중 인공기 이미지 방송 사고

한국의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18일(한국시간)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던 중 약 20초 동안 북한 인공기 이미지가 방송됐다. 설교자 박종길 목사의 음성도 끊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악이 함께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일부 시청자들에 의해 녹화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졌다.

온누리교회는 외부 해킹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마음의 눈을 뜨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라고 말합니다. 마음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心外無物), 마음이 곧 부처다(是心即佛)라고도 합니다.

마음 "심" 한 자의 문제만 올바르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마음을 알게 되면 부처를 알고, 마음이 부처이니까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 "마음의 눈을 뜨자" 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기가 먼 천지개벽(天地開闢) 전부터 벌써 성불했다는 것,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겁이 다하도록 성불한 그대로 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결국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법(觀法)을 한다. 주력(呪力)을 한다. 경(經)을 읽는다. 다라니를 외운다 등등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방법이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이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만 참선하는 것이 아니고 딴 종교에서도 참선 많이 합니다.

가톨릭 수도원의 아빠스(수도원장)라는 분이 나에게서 화두를 배운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새도 종종 오는데 화두 공부해 해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와서 화두 배운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네들 천주교에서는 바이블

(Bible) 외에 무엇으로써 교리의 의지(依支)로 삼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신학대전(神學大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그 책을 거의 완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큰 변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는 그 책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책이 하도 훌륭하므로 예수교에서는 그것을 신학교리의 큰 권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책이 처음에는 금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썩은 지푸라기인 줄 알고 차버린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토록 심경 변화된 그 마음자리, 그것을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화두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익히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교 사람들도 참선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 믿는 사람이 도리어 참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을 하려면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화두를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화두를 배워야 됩니다. 화두, 공안(公案)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떠서 확철히 깨쳐야 알지 마음의 눈

을 떠서 깨치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기 좋은 법문이 있습니다.

오색 비단구름 위에 신선이 나타나서(彩雲影裏神仙現), 손에 든 빨간 부채로 얼굴을 가리었다.(手把紅羅扇遮面) 누구나 급히 신선 얼굴을 볼 것이요(急須著眼看仙人) 신선의 부채는 보지 말아라(莫看仙人手中扇)

생각해 보십시오. 신선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빨간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다. 신선을 보기는 봐야겠는데 얼굴을 가린 부채만 보고 신선됐다고 할 것입니까? 빨간 부채를 보고서 신선을 보았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두를 참구(參求)하는 근본자세가, 화두는 안호인데 이 안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느냐 하면, 잠이 깎 들어서도 일어(一如)한 데에서 깨쳐야만 풀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못 푼다는 것,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눈을 확실히 뜨면 이것이 견성인 동시에 뜯 앞의 잣나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란 것은 마음 "심(心)"입니다. 마음의 눈만 뜨면 일체의 문제 일체의 만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삼세제불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체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뭐냐 하면 자성을 보는 것인데 바로 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공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여 화두를 바로 아는 사람,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

158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5에 있습니다)

9	2		1	3					
1		5	7					6	
				2				3	4
	6	3		7		8			5
			2	5				1	
					8		9	5	3
7							9		8
	8		4						

